

동향

March 2026 No.1

# 지능의 역설과 새로운 경제, “2028·2030 AI 노동시장 시나리오 분석”

안명옥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 지능의 역설과 새로운 경제, “2028·2030 AI 노동시장 시나리오 분석”

안명옥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allexan@kisdi.re.kr

## 요약

- 본고는 세계경제포럼(WEF) 「2030 미래 일자리 시나리오」와 시트리니(Citrini Research) 보고서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를 교차 분석하여 AI 기술 발전이 촉발하는 노동시장 구조 변동의 복수 경로를 분석하고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AI 상업화 가속) 기업의 AI 도입률이 88%까지 치솟으며(McKinsey, 2025)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창출 기대보다 2배 이상(일자리 소멸 우려 54.3% vs. 창출 기대 23.5%) 높아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계심이 지배적
  - (지능의 역설) AI의 성공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능의 역설은 기계의 소비 부재(MPC=0)와 노동 소득 기반의 소비 경제 붕괴, 그리고 생산성 이익이 가계를 우회하여 지표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GDP(Ghost GDP)를 발생시킨다는 세 가지 논거로 구체화
  - (WEF 4대 시나리오) AI 발전 속도와 노동 준비도에 따른 4대 시나리오 모두 임금 양극화와 기업 이익 상승을 보이며, 특히 ‘대체의 시대’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자 신뢰 급락으로 총수요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높음
  - (Citrini 위기 시나리오) AI 성공이 노동 대체와 소비 침식의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여 SaaS ARR(구독형 소프트웨어 연간 반복 매출) 붕괴발 사모신용 균열이 연금과 생명보험으로 전이되는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

- 국내 노동시장은 화이트칼라 고위험 직종 비중·SaaS 의존 IT 생태계·이중 노동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 경로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기에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시나리오 기반 정책 설계) 단일 미래 전제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어느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 유효한 강건 정책(robust policy) 패키지를 선별·설계하는 시나리오 기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 (선제적 사회안전망 재설계) 일시적·경기순환적 실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영구적 대체에 대응 가능하도록 근본적으로 재설계
  - (교육·훈련 시스템의 AI 시대 전환) AI 리터러시를 전 국민 기본 역량으로 설정하여 기초 교육부터 직업 훈련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에이전틱 AI의 빠른 확산에 대응한 윤리 기준, 책임 귀속 체계, 인간 감독 의무화 기준 등 선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

## 01 개요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상업화는 전 세계적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음
- 기존의 기술 혁신 변화와 달리 생성형 AI(Generative AI) 및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인지적 업무 전반에 걸쳐 인간 노동의 직접적 대체재로 기능하기 시작
-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는 현시점에서 복수 시나리오에 기반한 균형적 전망 분석이 학술적·정책적으로 필요
- 그동안 연구는 AI의 장기적 노동시장 효과를 단일 경로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조건의 조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거시적·균형적 미래 시나리오 분석과 시트리니(Citrini Research)의 극단적 위험(left-tail risk) 시나리오 분석을 교차 검토함으로써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실질적 의사결정 프레임を提供하고자 함

## 02 AI 발전과 시장의 충격

### I AI 발전과 상업화 가속화

- (기업 AI 도입률) 55%(2023년) → 72%(2024년 초) → 78%(2024년 말) → 88%(2025년)로 기업의 AI도입률이 2년 만에 급증하면서 AI가 산업 전반의 표준 업무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음(McKinsey, 2025)
- (에이전틱 AI 도입률) 응답 기업의 23%가 적어도 하나의 사업 기능에 에이전틱 AI를 확장 배포 중으로 AI가 정보 생성 도구에서 자율적 업무 실행 주체로 질적 전환 중
- (AI 리터러시 수요) AI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미국 내 직무 공고 수 전년 대비 70% 증가하고, AI 관련 학습 콘텐츠 시청 시간도 전년 대비 92% 급증(LinkedIn·WEF, 2026)
- (AI 자본지출) 2025년 연간 4,230억 달러에서 2030년 연간 1조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AI 자본지출(CapEx)이 전력망에 버금가는 국가 핵심 경제 인프라 투자로 위상 전환(UBS CIO, 2025)

- (WEF 거시 전망)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억 7,000만 개 창출 vs. 기존 일자리 9,200만 개 소멸 등 전체 일자리의 22%가 구조적 변동 영향권에 진입하며, 기존 스킬의 39%가 2030년까지 변화·진부화될 것으로 예측(WEF, 2025)

## I 글로벌 경영진의 AI 영향 인식조사(WEF, n=10,000)

- (일자리 창출보다는 소멸에 대한 우려) 전 세계 경영진의 54.3%가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는 비율은 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1 | AI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조사

AI 영향 항목	동의 비율(%)	전략적 함의
기존 일자리 대규모 대체	54.3	노동시장 대체 위험이 경영진 인식 내 가장 지배적 우려
기업 이익률 증가	44.6	AI 수혜가 기업 이익에 집중될 가능성(노동분배율 하락 우려)
재화·서비스 접근성 향상	37.0	소비자 후생 개선 기대(실질 소득 기반이 전제)
재화·서비스 가격 인하	30.0	디플레이션 압력과 소비 기반 침식의 양면성 내포
산업 집중도 심화	23.6	소수 AI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위험
신규 일자리 대규모 창출	23.5	낙관론적 시각은 경영진 사이에서도 소수 의견
특정 인구집단 차별 심화	21.4	AI 편향 문제가 노동시장 형평성에 미치는 위험
임금 상승 효과	12.1	AI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극소수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26)

## I 시트리니(Citrini) 보고서 발표와 금융시장 충격(2026.2.23)

- (배경) Citrini Research가 서브스택(Substack) 및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독립 분석 보고서로 공개하면서 기관 보고서가 아닌 독립 분석 보고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직접적 충격을 유발한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
- (핵심 명제) AI 기술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경제적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핵심 질문을 던지며,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노동 소득을 대체해 소비 기반을 침식하고 결국 금융 시스템의 연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능의 역설을 주요 명제로 제시

- (확산 규모 및 시장 반응) 단순한 투자 심리 변동이 아닌 기술 낙관론에 기반한 자산 가격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재평가받기 시작
  - 발표 24시간 내 트위터 조회수 1,800만 회 돌파, 공유 5,400회, 북마크 12,000회, 블룸버그 터미널 시간당 최다 조회 2위 기록
  - 마이클 버리(빅쇼트)의 트위터 공유 및 나심 탈레브(블랙스완)의 공감 표명이 시장 패닉 확산을 증폭
  - 뉴욕 3대 지수 일제 하락, 다우 -1.6%, S&P 500 -1.04%, 나스닥 -1.13%

표 2 | 시트리니 보고서 충격에 따른 뉴욕증시 폭락 종목

도어대시	-6.60%	우버	-4.28%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7.20%	세일즈포스	-3.80%
블랙스톤	-6.20%	서비스나우	-3.30%
KKR	-8.90%	클라우드스트라이크	-10%
마스터카드	-5.80%	애플빈	-9%
아폴로	-5.00%	몽고DB	-11.40%
비자	-4.50%		

※ 현지시간 23일 종가기준.

자료 : SBS Biz 뉴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2026. 2. 23

## 03 핵심 이론적 전제 - 지능의 역설

### I 역설적 핵심 명제: AI 낙관론의 비관적 귀결

- (시트리니 보고서의 출발점) Citrini Research는 AI 기술의 성공이 인간 노동 소득 대체와 소비 기반 침식을 유발하여 결국 금융 시스템의 연쇄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역설적 파국 가능성을 핵심 명제로 제시
- (핵심 논거 ①) 기계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 0
  - AI 에이전트·로봇은 재량 소비재(의류, 식음료, 여행 등)를 전혀 구매하지 않으며, AI가 대체하는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들면 동등한 소비 대체자가 존재하지 않음
- (핵심 논거 ②) 미국 GDP의 70%를 구성하는 인간 중심 소비경제는 노동 소득기반으로 작동
  - 자동화로 인한 기업 이익 증가가 소비로 환류되지 않으면 총수요가 구조적으로 위축됨

- (핵심 논거 ③) AI 생산성 향상의 산출이 가계 소득을 거치지 않으면 유령GDP(Ghost GDP) 발생
  - AI 생산성 향상의 산출이 가계 소득을 거치지 않으면 국가 계정에는 포착되나 실물 경제에서 순환하지 않는 산출물이 양산되며, 이 경우 GDP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의 연계가 단절될 수 있음

## I 인텔리전스 프리미엄 소멸 이론

- (근대 경제사 전제) 인간 지능은 대규모 복제가 불가능한 유일한 희소 투입요소로서 노동시장에서 지능 프리미엄을 형성해 왔음
- (전제 붕괴 시작) 생성형 AI 및 에이전틱 AI가 광범위한 인지적 업무 영역에서 인간 지능의 실질 대체재로 기능하기 시작
- (구조적 문제) 노동시장·모기지 시장·조세 체계, 교육시스템 등 현대 경제의 모든 제도가 인간 지능의 희소성을 전제로 설계·운영되어 왔음
- (재평가 진행) 해당 전제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구조적 재평가를 촉발
- (균형적 결론) 재평가는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그 이행 과정의 충격이 관리되는지 여부가 정책의 핵심적 역할

## I AI 에이전트에 의한 마찰 경제 해체와 수익 구조의 붕괴

- (마찰 경제 해체) AI 에이전트가 정보 비대칭, 인지적 한계, 시간 부족 등 인간의 취약점을 보완함에 따라 지난 50년간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기존의 지대 추구형 수익 기반이 해체되고 있음
  - 여행·보험·부동산·결제·SaaS·법률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개 수수료, 관성적 반복 계약, 정보 격차 기반의 프리미엄 등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AI 에이전트에 의해 직접 대체되거나 급격히 약화될 위험에 직면함
- (산업별 충격 강도) AI가 산업별로 가치 사슬을 해체하며 전달하는 충격의 강도는 해당 업종의 수익 구조가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정보 비대칭에 얼마나 의존해왔는지에 따라 결정됨
  - 매우 높음(IT 서비스·SaaS·콜센터): 에이전틱 AI가 업무를 직접 대체함에 따라 기존의 반복 매출(ARR) 구조가 소멸될 위기

- 높음(금융·법률·회계·보험·부동산): 전문 지식의 희소성에 기반했던 마찰 경제가 해체되며 중개 수수료와 정보 격차 기반의 수익 모델이 무력화
- 중간(의료·마케팅·미디어): 제도적 규제와 인간 간의 신뢰가 완충재 역할을 하며 당분간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유효할 전망
- 낮음(대면 서비스·건설·요식): 물리적 작업 중심의 산업으로 현재는 노출도가 낮으나 향후 로봇공학의 발전 속도에 따라 중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임

## 04 WEF 2030 미래 일자리 시나리오 분석

### I 분석 프레임워크

- (시나리오 설계 구조) WEF는 두 축을 교차하는 2×2 매트릭스로 2030년까지의 4대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

표 3 | WEF 2030 미래 일자리 시나리오

		노동력 준비도	
		광범위 (Widespread)	제한적 (Limited)
AI 발전 속도	지수적 (Exponential)	시나리오 1 초고속 진보(Supercharged Progress)	시나리오 2 대체의 시대(Age of Displacement)
	점진적 (Incremental)	시나리오 3 코파일럿 경제(Co-Pilot Economy)	시나리오 4 정체된 진보(Stalled Progress)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26)

- (방법론) WEF 최고전략책임자(CSO) 커뮤니티, 글로벌 미래위원회, 글로벌 포사이트 네트워크 소속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시나리오 공동 구성
- (시나리오 성격) 특정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각 경로별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는 탐색적 성격을 띠며, AI의 발전 속도 자체보다 노동력의 준비도와 제도적 대응 역량이 시나리오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강조

## I 4대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1) 초가속 진보(Supercharged Progress): 지수적 AI 발전 + 광범위한 노동력 준비도
  - AI의 지수적 발전과 교육 시스템의 신속한 재설계가 맞물려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인간의 역할이 직접 업무 수행에서 AI 에이전트를 설계·감독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agent orchestrator)로 전면 전환됨
  - AI 도구가 지리적·교육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기술 민주화가 가속화
  -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지연(Time-lag)과 AI 숙련도에 따른 임금 격차의 기록적 확대가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핵심 리스크로 작용
- (시나리오 2) 대체의 시대(Age of Displacement): 지수적 AI 발전 + 제한적 노동력 준비도
  - 전통적 교육 체계의 고착화 속에 자동화 비용이 재교육 비용보다 낮아지는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기업들이 인력 충원 대신 광범위한 AI 자동화를 채택하여 인간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
  - 기술의 업무 흡수율이 평균 50%에서 고노출 섹터 90%에 육박하며 생산성은 극대화되나, 소수의 국가급 기업이 기반 모델과 컴퓨팅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의 진입 장벽과 구조적 왜곡이 심화
  - 이행적 실업을 넘어선 영구적 노동 대체로 인해 소비자 신뢰지수가 역사적 저점으로 급락하며, 총수요 기반이 붕괴되는 경제적 파국(Citrini 2028 위기)의 위험이 가장 높음
- (시나리오 3) 코파일럿 경제(Co-Pilot Economy): 점진적 AI 발전 + 광범위한 노동력 준비도
  - AI 상업화 속도가 조절됨에 따라 사회가 협업 모델을 소화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업무 증강(Augmentation) 방식으로 직무 구조가 안정적으로 재편
  - AI 리터러시가 전 국민의 보편적 역량으로 자리 잡으면서 특정 업무 시간이 최대 80% 단축되고, AI 기술과 개별 도메인 전문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직종이 대폭 확장
  - 기술 도입 및 숙련도 확보에 성공한 조기 투자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국가적 경쟁 우위 격차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발생
- (시나리오 4) 정체된 진보(Stalled Progress): 점진적 AI 발전 + 제한적 노동력 준비도
  - AI 역량 향상의 돌파구 부재와 준비된 인재 부족, 컴퓨팅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기대했던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이익이 전반적으로 미실현되는 정체 국면에 진입
  - 직종의 완전한 소멸보다는 직무 내용이 부실해지는 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나타나며,

- 조기 AI 투자에 성공한 특정 기업과 지역에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경제 양분화가 고착화
- 초기 경력 일자리와 행정 업무가 AI로 우선 대체됨에 따라 청년층 및 신입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가 급격히 협소화되는 구조적 고립 위험이 심화

## I 시나리오별 주요 경제 지표 변화 방향

- (시나리오 공통 지표 변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업 이익률은 상승하는 반면 임금 양극화는 예외 없이 심화되어 정책적 개입 없이는 AI의 경제적 수혜가 자본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별 결정적 분기점)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나리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서 대체의 시대(시나리오 2)는 총수요 기반이 붕괴되는 유일한 파국 경로인 반면, 코파일럿 경제(시나리오 3)는 실업률 안정과 신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균형 경로로 확인

I 표 4 I 시나리오별 주요 경제지표 변화 방향

지표	기준값 (2025년)	① 초가속	② 대체	③ 코파일럿	④ 정체
AI 역량(MMMU 상위5개 모델 평균)	84.2	↑	↑	↗	↗
AI 리터러시-인접 스킬	N/A	↑	→	↗	→
노동생산성 증가율(연간)	1.5%	↑	↗	↗	→
실업률	5%	↗	↑	→	↗
소비자 신뢰지수	48.8	→	↓	↗	↓
에이전트AI 기업 도입률	23%	↑	↑	↗	→
임금 양극화	16.8	↗	↑	↗	↑
S&P 500 분기 영업이익률	12.6%	↑	↗	↗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26)

# 05 시트리니(Citrini Research)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시나리오

## I 위기의 전개 타임라인(2025~2028)

- (1단계) 진입 충격(2025년 말~2026년 상반기)
  - 에이전틱 코딩 도구의 비약적 발전으로 SaaS의 기술 진입장벽이 소멸하며, 기업들이 기존 계약 갱신 대신 자체 개발을 검토하는 등 SaaS 산업의 반복 매출(ARR) 기반이 무너짐
  - 포춘 500대 기업이 자체 개발 위협을 카드로 대규모 계약 할인을 이끌어내는 등 소프트웨어 시장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
- (2단계) 표면적 번영과 구조적 균열의 공존(2026년 하반기~2027년)
  - 주가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며 표면적으로는 호황을 보이거나 이면에서는 실질 임금 붕괴와 화이트칼라 해고가 본격화되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가시화
  - 대규모 사모신용 디폴트를 기점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부실이 사모펀드(PE), 생명보험사, 가계 연금으로 확산되며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
- (3단계) 구조적 위기 현실화(2028년)
  - 노동소득 비율이 역사적 최저치로 추락하며 연방 세입이 급감하고 가계 소득 기반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는 재정 위기에 직면
  - 주요 테크 허브의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붕괴하면서 노동 소득 소멸에 따른 실물 경제의 구조적 침체가 현실화

I 표 5 I 글로벌 위기 전개 시나리오

시기	핵심 사건	세부 내용 및 여파
2025년 말	에이전틱 AI 도약	Claude Code 등 혁신 도구 등장으로 중견 SaaS 핵심 기능 복제 가능
2026년 초	화이트칼라 해고 시작	자동화로 인한 마진 확대 및 기업 이익 사상 최고치 경신
2026년 10월	시장 도취와 쇼크	지수 고점(S&P500 8,000 / 나스닥 30,000) 돌파, 구조적 균열 심화
2026년 10월	ServiceNow 쇼크	성장률 급감 및 인력 15% 감축, 추가 급락
2026년 말	노동시장 냉각	JOLTS 구인 건수 급감(550만 미만), 지식 서비스직 채용 실종
2027년 초	마찰 경제 붕괴	여행·보험·부동산 등 정보 비대칭 기반의 중개 모델 전면 해체
2027년 1분기	결제망 우회 현실화	Mastercard 쇼크, 에이전틱 소비 확산으로 구매 증가율 둔화
2027년 2분기	공식 경기침체	2개 분기 연속 실질 GDP 마이너스 성장 기록
2027년 3분기	사모신용 디폴트	Zendesk 부실, 50억 달러 대출 디폴트로 SaaS ARR 신화 붕괴
2027년 11월	금융시장 폭락	부정적 피드백 루프 가속화로 인한 자산 가격 연쇄 폭락
2028년 6월	구조적 파국	실업률 10.2% 돌파, 주가 고점 대비 -38%, 주택 연체 위기

자료 : Citrini Research(2026)

## I 핵심 메커니즘: 자연 제동장치 없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

- (일반 경기침체와 차이) 일반 경기침체는 시장의 자기교정(Self-correcting) 기제가 작동하나, AI 주도 위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 대체가 가속되는 역방향 자동화 루프로 인해 반등 메커니즘이 부재
- (비순환적 피드백 루프의 구조) AI 성공 → 노동 대체 → 소비 침식 → 추가 투자 압박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AI 투자가 자본 형성(CapEx)이 아닌 운영 비용(OpEx)인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기능
- (정책 대응의 구조적 한계) 노동소득 기반의 세입 기반 침식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이 제한되며 소득 상실에 따른 근본적인 수요 부족 문제를 통화정책(금리 조절 등)만으로는 해결하기 불가능

## I 금융 시스템 연쇄 위기

- (사모금융 시장 균열) AI 에이전트의 서비스 대체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반복 매출(ARR) 기반이 무너지면서 2027년 젠데스크 디폴트를 기점으로 발생한 부실 리스크가 생명보험사와 가계 연금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노후 자산을 위협
- (주택담보대출 시장 위협) 화이트칼라의 고용 위기로 인해 13조 달러 규모 모기지 시장의 전제인 30년 소득 유지 능력이 구조적으로 상실되면서 대출 상품 부실을 넘어 차입자의 소득 자체가 소멸하는 전례 없는 실물 자산 파국에 직면

## I 정책 실패와 사회적 갈등

- (정부 대응의 구조적 한계) 인간의 노동 시간 과세에 의존하는 연방 세입 구조가 AI의 노동 대체로 인해 2028년 기준선 대비 12% 미달하며 붕괴되고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사상 최저치(46%)로 추락하며 기존의 경기순환적 실업 대응 체계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짐
- (정책 대응의 실패와 공전) AI 연산세나 공동 AI 번영법 등 새로운 재분배 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이념적 대립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대응 계획의 부재 자체가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핵심 위험 요소로 작용

## 06 소결 및 시사점

- WEF와 Citrini Research는 AI가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경제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변환을 초래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그 성패는 기술 발전 속도보다 노동력의 준비도와 정책 대응의 적시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
  - (지능의 역설과 소비 기반 침식) AI 기술의 성공이 인간의 노동 소득을 대체함으로써 소비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표상으로는 존재하는 유령 GDP(Ghost GDP)를 양산하는 구조적 모순이 실재함을 규명
  - (정책 개입 없는 임금 양극화의 고착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임금 양극화 심화는 공통된 방향으로 나타나며 이는 시장의 자정 작용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을 경제 지표 비교를 통해 확인
  - (부정적 피드백 루프와 디플레이션 위험) 자연적인 제동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 대응이 경제 현실보다 뒤처질 경우 노동 대체와 소비 감소가 맞물리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화
  - (선제적 제도 설계를 통한 새로운 균형 도달) 전방위적인 경제적 재평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나 선제적인 제도 설계와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새로운 경제적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음
- 국내 노동시장은 화이트칼라 고위험 직종 비중·SaaS 의존 IT 생태계·이중 노동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 경로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시나리오 기반 정책 설계) 단일 미래 예측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어떤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강건 정책 패키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 (선제적 사회안전망 재설계) 일시적·경기순환적 실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안전망을 구조적 소멸과 영구적 대체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근본적으로 재설계
  - (교육·훈련 시스템의 AI 시대 전환) AI 리터러시를 모든 국민이 갖춰야 할 보편적 기본 역량으로 설정하고 기초 교육부터 직업 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인적 자원의 준비도를 향상
  -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에이전트 AI의 확산 속도에 맞춰 윤리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체계, 인간의 감독 의무화 등 법적·제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제적으로 설계

## 참고문헌

월간조선(2026), “미 증시 뒤흔든 ‘시트리니 보고서’ 전문 공개”, 2026. 2. 24.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3829&Newsnumb=20260223829](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3829&Newsnumb=20260223829)

SBS Biz 뉴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2026. 2. 23.

LinkedIn Economic Graph & World Economic Forum(2026), “AI has already added 1.3 million jobs”. <https://www.weforum.org/stories/2026/01/ai-has-already-added-1-3-million-new-jobs-according-to-linkedin-data/>

McKinsey & Company(2025), “The state of AI: How Organizations Are Rewiring to Capture Value. McKinsey Global Survey”. <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quantumblack/our-insights/the-state-of-ai>

McKinsey & Company(2025), “The state of AI in 2025: Agents,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McKinsey Global Institute”. <https://www.mckinsey.com>

PwC(2025), “PwC 2025 Global AI Jobs Barometer”. <https://www.pwc.com/gx/en/services/ai/ai-jobs-barometer.html>

UBS Chief Investment Office(2025), “Wired for Growth: Why energy is so critical for AI’s next chapter. UBS Global Wealth Management”. <https://www.ubs.com/global/en/wealthmanagement/insights/chief-investment-office/house-view/daily/2025/latest-17112025.html>

World Economic Forum(2026), “Four Futures for Jobs in the New Economy: AI and Talent in 2030”. White Paper

World Economic Forum(2025), “Future of Jobs Report 2025. WEF Press Release”. <https://www.weforum.org/press/2025/01/future-of-jobs-report-2025-78-million-new-job-opportunities-by-2030-but-urgent-upskilling-needed-to-prepare-workforces/>

<https://www.citriniresearch.com/p/2028gic>

<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quantumblack/our-insights/the-state-of-ai>

#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KiSDi Perspectives는 국내외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노희윤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hyooooon@kisdi.re.kr, 043-531-4042)